

# “궁금해 죽겠다” 온통 ‘SKY 캐슬’ 이야기뿐



헤나 역 김보라



김주영 역 김서형

“그래서 헤나 누가 죽었대?” 이 정도면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속 남편 찾기 그 이상이다. 요새 우리 주변은 온통 JTBC 금토극 ‘SKY 캐슬’ 이야기뿐이다. 20~30대 젊은 층, 40~50대 장년층 가릴 것도 없다.

‘불금’, 그리고 토요일 밤 11시라는 절대 유리하지 않은 시간대 방송하는 이 드라마는 지난 12일 4회를 남겨둔 16회에서 시청률이 19.2%(닐슨코리아 유료가구)까지 치솟았다. 수도권에서는 21.0%로 이미 20%를 넘었다.

남은 방송 기간 케이블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tvN 드라마 ‘도깨비’ (20.5%) 기록도 꺾 수 있을지 주목된다.

끝을 모르고 치고 올라가는 시청률만큼 결말에 대한 시청자 관심이 뜨겁다.

지난 11일 한서진(염정아 분)과 김주영(김서형)을 상대로 고군분투하던 헤나(김보라)가 죽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살인범 정체를 두고 온종일 온·오프라인이 시끄러웠다. 심지어는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SKY 캐슬 스

## 헤나를 죽인 범인은? ... 예서는 서울의대 같가? 4회 남기고 시청률 20% 코앞...결말 추측 난무

포(일라)’가 오르기도 했다.

헤나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추측부터 김주영이 사주했다는 설까지 자칭 스포일러 종류도 다양한데, 그 내용이 꽤 구체적이어서 정말 스포일러가 아닐까 싶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출처도 불분명한 그 스포일러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이러면 너무 막장”, “이 결말, 감당할 수 있겠나” 등 품평에도 정신이 없다.

심지어는 드라마 포스터 속 인물들 표정과 자세, 구도를 놓고 결말을 예측하는 시청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반응이 과열하자 드라마 측은 13일 “일부 예측 글이 실제 드라마 내용과 같았던 것은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하게 추측하신 내용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일 뿐, 제작진 유출이 아니다”라며 “남은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류층 학부모들의 입시 전쟁을 적나라하게 풍자한 ‘SKY 캐슬’은 과장을 통해 비꼬는 재미 외에 추리 요소를 적절하게 섞어 시청자 관심을 놓치지 않고 꺾 붙는다.

물론 ‘학’ 소리 날 만큼 기막힌 상류층 백태와 배우들 열연이 작품 인기에 큰 역할을 하지만, 다음 회를 안 보고는 도저히 못 배기게 하는 궁극중 유발 장지도 흥행 일등 공신이다.

헤나를 누가 죽였는지, 예서(김혜윤)는 과연 서울의대에 갈 수 있을지, 서진과 승혜(윤세아)이 가장은 정말 파국을 맞을지 등 늦은 밤 시청자를 잠 못 들게 하는 궁극중이 한둘이 아니다. “○○가 남편이라더라”는 단순한 형태의 스포일러를 넘어 소셜체로 쓰인 스포일러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석진 총남대 국문과 교수 겸 드라마 평론가는 “일단 재밌게 만든 게 첫 번째고, 예측하기 어려운 전개가 흥미를 유발

한다”며 “이게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온 완전히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교육 문제를 과장이 섞여도 극사실적으로 풀어냈는데 권선징악, 인과응보 식으로 결말을 짓기에는 비현실적이고 그렇다고 열린 결말을 취하는 것도 아쉬움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유현미 작가는 늘 현실 문제를 포착하는 능력이 남달랐는데 결말은 대부분 권선징악이었다. 이번에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도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앞으로의 전개에 다들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자기만의 해석을 내놓게 되는데, 서로 보완해 발전시키면서 진짜 스포일러처럼 인식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SKY 캐슬’은 앞으로의 내용이 예측불허라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고, 또 이번 주 보고 나면 다음 주까지 1주일이나 기다려야 하니 답답하고 무료해서 예측과 상상을 소비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온 완전히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교육 문제를 과장이 섞여도 극사실적으로 풀어냈는데 권선징악, 인과응보 식으로 결말을 짓기에는 비현실적이고 그렇다고 열린 결말을 취하는 것도 아쉬움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유현미 작가는 늘 현실 문제를 포착하는 능력이 남달랐는데 결말은 대부분 권선징악이었다. 이번에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도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앞으로의 전개에 다들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자기만의 해석을 내놓게 되는데, 서로 보완해 발전시키면서 진짜 스포일러처럼 인식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SKY 캐슬’은 앞으로의 내용이 예측불허라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고, 또 이번 주 보고 나면 다음 주까지 1주일이나 기다려야 하니 답답하고 무료해서 예측과 상상을 소비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 김희애, 감성 멜로 영화 ‘만월’ 주연 발탁

### 일본 배우 나카무라와 호흡

배우 김희애(사진)가 멜로 영화 ‘만월’에 캐스팅됐다.

16일 배급사 리틀빅픽처스에 따르면 김희애는 ‘만월’에서 일본 배우 나카무라 유코, 김소혜, 성유빈 등과 호흡을 맞춘다.

이달 말 촬영에 들어가는 ‘만월’은 첫사랑이 보낸 편지를 받게 된 윤희가 있고 지냈던 기억을 찾아 떠나는 내용의 감성 멜로물이다.

지난해 영화 ‘허스토리’로 부일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김희애는 주인공 윤희 역을 맡아 섬세한 멜로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영화 ‘호타루’ 등에 출연한 나카무라 유코는 윤희의 오랜 친구 준 역을 맡았다.

윤희의 딸 새봄 역에는 걸그룹 아이오아 이 출신 김소혜가 낙점됐고, 영화 ‘살아남은 아이’로 주목받은 성유빈은 새봄의 남



자진구 경수 역할에 캐스팅됐다. 각본과 연출을 맡은 임대형 감독은 “이 작품은 살아가면서 잊고 지내는 사랑과 배려의 가치를 말하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 한혜진, 난방 소외 30가구에 3천만원 기부

### 월드비전 홍보대사 활동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월드비전은 홍보대사인 배우 한혜진(사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방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월드비전은 이 후원금을 난방 소외 계층 30가구를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한 가정당 100만원 규모로 난방연료, 방한용품, 주머니수리 등을 지원한다.

한혜진은 “난방비 걱정으로 인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혜진은 2008년부터 11년째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활동해왔다. 2013년 기성용과의 결혼식 때는 축의금 전액을 희소식이



동의 수습비로 기부했고, 라오스와 동공고에 식수펌프를 후원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5 문지방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0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5 공복자들 스페셜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왜그래 풍상씨(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원손잡이 아내(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13	00 사랑의 가족 50 브레드 이발소(재)		25 뽀뽀뽀 모두가 놀자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4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15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 55 헬로키즈 동물교실(재)	
16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뽀뽀뽀 로그인 코리아(재) 55 닥터 365
17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 V 15 타오르자마 버스터 2 30 주간연예수첩	15 내 사랑 치유기(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8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가로채널(재)
19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원손잡이 아내	10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목 남도에 살아리렀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20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왜그래 풍상씨(재)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1	00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 <홍진>			
22	00 KBS 스페셜 55 UHD 승터	00 왜그래 풍상씨	00 출발! 드라마 여행 2019 드라마 미리보기	00 황후의 품격
23	00 오늘밤 김제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0 대장금이 보고있다 1~2부	10 가로채널 1~2부
24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뽀뽀 뽀로로
05:30 통일 미리보기 <워터뉴스 예리대회>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나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엠바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기차타고 구석구석, 우리가 몰랐던 일본 4부 옛 시간속으로 거닐다 오이다>
08:30 미니특급 X	14:45 로보카 폴리	21:30 한국기행
08:45 칼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아공이기행2 4부 올마의 가미술>
09:00 두다다콩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21:50 다큐 시선
09:30 원더볼츠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30 한국기행(재)	16:30 칼랄라 뿌우(재)	25:05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시금치무침과 생강차>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25:10 과학 다큐-비욘드(Beyond)
	17:15 두다다콩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7일(음 12월 12일 甲寅)

<p><b>子</b> 36년생 무리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되느니라. 48년생 실리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 60년생 요령을 찾고 보면 매우 쉬워질 것이다. 72년생 망심한다면 급락할 수도 있는 국면이다. 84년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01, 36</p>	<p><b>午</b> 42년생 아쉬움이 강하게 남겠지만 빨리 잊는 것이 좋다. 54년생 냉철한 고찰이 필요하다. 66년생 거의 모든 재앙은 무리함에서 비롯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자. 78년생 알뜰해야 실속이 있는 법이다. 90년생 중지를 모았을 때 획기적인 방안이 나온다. 행운의 숫자 : 92, 58</p>
<p><b>丑</b> 37년생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49년생 시간이 지날수록 가관이로다. 61년생 효율적인 관계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73년생 차별화 시키지 않는다면 파격적인 진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85년생 만인이 부러워하는 경쟁이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44</p>	<p><b>未</b> 43년생 체면을 버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55년생 오해의 소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간접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다. 79년생 일장 일단이 있음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91년생 동선을 달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8, 48</p>
<p><b>寅</b> 38년생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된다. 50년생 순탄할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도 된다. 62년생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74년생 혼란이 따르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86년생 표면일 뿐이므로 동료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8, 60</p>	<p><b>申</b> 44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56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68년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최상책임을 분명히 알라. 80년생 열성을 다 해야 할 시기이다. 92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3, 93</p>
<p><b>卯</b> 39년생 목전의 현실에만 집중하라. 51년생 정성을 들인다면 결과물의 확보도 가능하다. 63년생 철저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75년생 아깝더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취할 수 있다. 87년생 중용의 입장과 균형 잡힌 처세가 필수적이다. 행운의 숫자 : 95, 94</p>	<p><b>酉</b> 45년생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57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69년생 본연의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이익이다. 81년생 의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라. 93년생 단순한 착각은 여러 가지 망상을 부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1, 57</p>
<p><b>辰</b> 40년생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52년생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나머지는 자연히 정리된다. 64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속을 챙겨야 할 때이니라. 76년생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88년생 따로 떼어 놓고 판단함이 정확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7, 82</p>	<p><b>戌</b> 34년생 풍전등화와 같은 난국에서 전화위복하라. 46년생 손구쳐 오르는 기세의 운로이다. 58년생 여유를 갖고 일다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70년생 현황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82년생 주목할 정도의 실익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7, 10</p>
<p><b>巳</b> 41년생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성곡을 만들어 가는 것이 능률적이다. 53년생 반면교사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진다. 65년생 파악은 하되 처리는 보류함이 유익하다. 77년생 풍성한 결실의 밑거름이 되리라. 89년생 기묘한 성곡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80</p>	<p><b>亥</b> 35년생 진본을 가장하여 사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 47년생 지나치게 쉬운 진귀함이 보인다. 59년생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지혜롭다. 71년생 발상이 참신하다면 결과가 길할 것이다. 83년생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갖자. 행운의 숫자 : 24, 87</p>